

일깨우다[提醒]

(李洪志 2016년 7월 31일)

일깨우다[提醒]

미국중부법회에 참가한 대법제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!

대법제자가 매일 수련을 견지[保證]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,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사명이다. 원만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. 한 것이 어떠한가가 바로 정진(精進) 여부의 수련상태이다. 사회형식은 변화할 것이나, 수련의 요구는 영원히 개변되지 않을 것이다.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표준이며, 대법의 표준이기 때문이다.

법회의 원만한 성공을 축원한다!

李洪志

2016년 7월 31일